

민주당 '공천개혁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촉각 곤두 결국 '텃밭물갈이'로 가는가

민주당 개혁특위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공천개혁안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천개혁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호남 물갈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개혁특위의 공천개혁안이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혁특위의 공천개혁안이 당내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지 않은데다 최고위원회의 수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아직 유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혁특위 공천 개혁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당내 논의가 이뤄진다면 전반적인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내 개혁특위가 민생정책 개발, 외연확대 등의 시급한 사안보다는 공천 개혁 등에 대해 방점을 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벌써부터 당내 공천안을 둘러싸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당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연확대와 민생정책 개발 등이 시급한 현안이며 공천개혁안은 당내 논의를 거쳐 가장 나중에 처리해도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개혁특위가 제시한 공천안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역구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 평가지수를 개발, 기준에 미달한 현역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한다고 했지만 평가지수를 계량화하기도 어려운데다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여기에 전문가 및 국민 배심원을 구성, 토론회를 통해 경선 점수를 산정하는 '슈퍼스타 K' 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배심원 구성에 있어 공정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하기 어렵고 배심원

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가 공정한 공천과 흥행을 일으키기 보다는 심각한 후유증만 남기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개혁특위가 제시한 공천개혁안이 결국 '호남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갈이 기준이 지역 민심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갈이 기준이 지역 민심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믿을 것은 지역민심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D-1

3인 혼전 속 '손심'·'박심' 변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11일로 이를 앞두고 다가왔으나 관세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유선호·강봉균·김진표(기호 순) 의원 등 3인의 후보가 저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게 정국권의 일관적 시각이다. 선거전에 일제강제 뛰어든 강, 김 의원 측은 모두 '강(強)2중(中)' 구도를 자신하고 있다.

소속 의원 87명 중 경선 당일 해외 출장자 2명과 구속 중인 강성총 의원

등 3명을 뺀 유효표 84명 가운데 강 의원 측은 50명 이상, 김 의원 측은 43~45명에 달하는 '과반의 우군'을 확보했다며 "1차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유 의원은 선거전 중반으로 가면서 30여 표를 확보했다며 결선에만 진출하면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광주·전남의 표와 함께 당내 개혁 성향 인사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유 의원 측은 특히 다른 두 후보가 모두 비교적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관료 출신이어서 선거구도상 불리한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 후보가 주장하는 표를 모두 더하면 민주당의 득표 수를 훨씬 웃도는 130표에 육박하기 때문. 한 의원을 놓고 서로 다른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라고 우기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막판 부동표를 잡기 위해 세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손심'(孫心, 손학규 대표의 의중)과 '박심'(朴心, 박지원 원내대표 의 의중)이 마지막 순간 한쪽으로 쏠릴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손 대표는 최근 3인 모두 각각 개별면담했으나 누구에게도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준비안된 한·미 FTA

손학규 "동의 못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준비 안된 FTA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한·EU FTA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한·미 FTA"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다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피해산업 및 피해국민의 규모가 한·EU(유럽연합) FTA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 훨씬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우여·정의화 '투톱체제'로

한나라 비대위 갈등 의총서 '역할분담' 결론

친아-소장과 당 개혁 놓고 재격돌 가능성도

임시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이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을 분담하는 사실상의 '투톱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추진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오전 긴급 중진회의에서 마련한 "당대표의 권한대행은 원내대표가 맡는 대신, 비대위 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통상업무,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 업무 및 당 쇄신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기존 비대위 구성은 존중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박수로 추진했다. 또 주요 당무협의는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원장이 상호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당은 쇄신과 개혁을 위한 비대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총에서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대구 출신인 이병

규 의원이 임명됐다. 또 이 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유일호·김광림·이상권·김세연·유재중·이화수·한기호·김호영·윤영·박영아·이정선·이두아 의원 등 모두 13명의 원내대표단이 구성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친이(친이명박) 주류와 소장파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됐으나 일부에서는 소장파가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결정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간 역할 구분이 애매하게 돼있는데다 향후 당 개혁을 놓고 민감한 문제가 생어있다는 측면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날 의총에 앞서 한나라당 사무처는 당 대표직을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당헌에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선 이상

의 의원들이 중진회의를 열어 이를 지지했다.

특히 신주류는 재보선 패배 후 안 전 대표가 인선한 비대위는 '정의화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비대위원을 보강해 현재 친이(친이명박)계가 과반을 차지하는 비대위원 구성을 소장·친박계 중심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은 바꾸지 않겠지만 원외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애초 비대위에 포함됐던 소장파 김성식 의원이 정책위부장에 임명되면서 비대위원회의 사퇴 의사를 밝혀 새 인물로 교체될 예정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등 전대 준비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3~4개 소위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며 내일 오전 9시 첫 번째 회의를 연다"고 말했다.

한편, 원외위원회의 의총에서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등 전대 준비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3~4개 소위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며 내일 오전 9시 첫 번째 회의를 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청권 '새판짜기' 논의 시동

심대평·이인제·정우택·이태복씨 토론회 개최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계기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 한나라당 정우택 전 총복지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청 출신 정치인들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총청 정치권의 새판짜기 구상에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이날 대안에서 개최한 '총청, 새로운 정치 주역이 될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는 "보수·진보의 이념적 양분은 아니라, 21

세기는 가치 중심, 생활 중심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중심연합 심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주의, 선거 패권주의에 함몰돼 국민은 없고, 정치를 위한 정치만 있다"면서 "새로운 가치, 정치 체계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사회적으로 수출 중심 대기업 체제의 한계, 사회양극화 및 부패사 심화 등

에 부딪치고 있다"면서 "지역, 대중, 수출주도대 소외된 민생에 대안을 제시하고, 움직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정 전 지사는 "기존 정당으로는 국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21세기 새로운 가치 정당이 총청이 중심이 돼 나와야 한다는 데 기본 인식을 같이한다"고 동참했다.

한편, 이날 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회창 사퇴는 전략적 이벤트"라고 비판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 "잘고 싶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라며 이 의원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토지는 전북, 주택은 경남으로"

민주당 "LH 분산배치" 법 개정 추진

민주당은 11일 정부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대안발, 분산배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 부문은 전북으로, 주택 부문은 경남으로 이전하는 분산배

치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LH공사를 특정 지역에 한집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기도가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단호하게 맞서 저항해야 한다. 국민

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괄이전 종단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원주 전북지사는 "국회의원의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원내대행을 확실하게 워달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의 및 상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LH공사 분산 배치를 요구했으나 황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며 원만한 답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 모집인원 0명
-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 근무조건
-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 경운기 작동 가능자
-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앵남리
- 급여 면접 후 결정
-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 연락처 062)651-8871
- 010-3763-7335
-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공무원대출

공무원 대출

- 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금액 : 500만원~8,000만원
- 금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금액 : 500만원~5,000만원
- 금리 : 년 9%~
-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 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 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 13.3%~44%(연체금리 44%)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